

강정호 품은 키움 도대체 어떤 마무리 기대하나

국내 프로야구 KBO리그 복귀를 추진중인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가 지난 2020년 6월 23일 오후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 운전 심진아웃'과 등과 관련 사과하고 있는 모습.



2년 전에도 KBO리그 복귀 추진하다 무산

키움, 임의해지 복귀 승인 요청... 반대 여론 쏟아져

언뜻봐도 특보단 실이 많다. 그래도 키움 히어로즈는 강정호(35)에게 유니폼을 못 입혀 안 달이다. 내놓는 해명도 이해할 수 없긴 마찬가지다.

2022시즌 프로야구 개막을 보며 앞두고 키움은 강정호의 KBO리그 복귀라는 '불발행동'으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키움은 지난 18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강정호에 대한 임의해지 복귀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곧장 강정호와 키움을 향한 반대 여론이 쏟아졌다.

그렇면서도 하다.

KBO리그를 주름잡고 미국 메이저리그까지 진출했던 강정호는 세 차례 음주운전 이력으로 야구계에서 사실상 '퇴출'된 인물이다.

강정호는 2016년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고, 운전자 바뀌기까지 시도했다. 조사과 정에서는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실도 들쭉날쭉다.

이로 인해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해 2017시즌을 통째로 날린 강정호는 2018시즌 막판 빅리그에 복귀했지만 부진 끝에 2019년 8월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방출됐다.

미야가 된 강정호는 2020년에도 자신의 보류권을 갖고 있는 키움과 손잡고 KBO리그 복귀를 타진했다.

그러나 기대만큼 실망이 컸던 팬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뜻을 접었다. 당시 강정호는 자신의 SNS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

던 마음도 히어로즈에서 야구를 하고 싶었던 마음도 모두 저의 큰 욕심이었다"고 적었다.

2년 전에는 강정호가 구애를 보냈다면 이번엔 키움이 먼저 팔을 걷어붙였다.

강정호의 거취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던 2020년과는 달리 이번엔 아예 2022시즌 선수 계약까지 먼저 맺고 이를 언론에 공표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건 강정호를 품은 키움이 기대하는 것이다. 분명 열는 것이 있으니 강정호 복귀를 결정했을 텐데, 아무리 들여다 봐도 이를 예상하기가 어렵다.

키움이 강정호와 계약했다고 해서 당장 이번 시즌 전력에 보탬이 되는 건 아니다. 강정호는 음주운전으로 KBO 상벌위원회로부터 1년 유기 실격, 봉사활동 300시간 징계를 받았다.

1년 유기실격 징계는 KBO가 임의해지 복귀 승인을 공시하는 순간부터 발효되는 만큼 강정호는 올 시즌 KBO리그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선수단 훈련 참가도 금지된다.

강정호가 실제 그라운드에 설 수 있는 건 2023시즌부터다.

한때 리그 최고 유격수로 꼽혔던 강정호지만 내년이면 한국 나이로 37살이 된다. 꾸준히 경기를 뛰어난 베테랑들도 '황혼'에 접어들며 기량저하를 겪을 수밖에 없는 시기다.

더욱이 강정호는 2019시즌 중 피츠버그에서 방출된 후 실전경기를 제대로 뛰지 못했다. 실전 공백만 3년 이상이 발생하는 셈이다.

강정호가 내년 키움에 합류한다 한들 엄청난 전력 상승을 기대하긴 어렵단 얘기다.

여기에 강정호 복귀를 추진하면서 구단은 엄청난 비난과 맞서게 됐다. 히어로즈라는 구단 이름도 무색할 지경이다.

고형욱 키움 단장은 "10년 넘게 야구인으로 살아온 선배 야구인으로서 강정호에게 야구선수로서 마무리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 영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해명이다. 키움과 강정호가 바라는 '마무리'가 어떤 장면인지는 모르겠으나, 야구로 보답하는 시대는 이미 끝난 지 오래다.

술한 사태를 겪으면서도 이를 몰랐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외면했다면 야구계를 기만한 것이다.

/뉴시스

러시아 축구 최종 퇴출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이번에도 국제축구연맹(FIFA)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유럽지역 플레이오프에서 최종 퇴출됐다.

CAS는 지난 19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 축구의 퇴출 내용을 담고 있는 FIFA 결정을 중지시켜 달라는 러시아축구협회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CAS의 결정으로 러시아 축구는 세계 축구계에서 최종 퇴출됐다. 러시아는 UEFA와 FIFA가 결정을 번복하거나 징계를 풀지 않는 한 당분간 국제 무대에서 볼 수 없게 됐다.

/뉴시스

체육인 교육의 요람 '첫 삽'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기공식... 2024년 준공 목표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지난 18일 오후 3시 전남 장흥군 부산면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건립부지에서 체육인 교육의 요람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기공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은 대한체육회와 장흥군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 3월 지장물 철거를 시작으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이날 기공식에는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김재무 전라남도체육회장을 비롯한 여러 시·군·구 체육회장 등 약 150명이 현장 참석하고, 교육감··은퇴선수··행정가 등 5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가했다.

행사는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개회사 및 축사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건립 추진 경과보

고 ▲홍보영상 상영 ▲건립 선포 세리머니 ▲시삽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은 체육인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체육 분야 특수성에 기반해 설립되는 종합 교육·연수시설이다. 총 사업비 313억원 투입, 연면적 1만150㎡, 약 200명 수용 규모의 지상 3층 교육동과 지상 4층 숙박동, 지상 2층 체육관이 들어온다.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교육계획 수립 및 과정 운영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강사 양성 ▲교육 협력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체육회는 체육인재개발원이 완공되면 연간 5만여 명의 교육생이 방문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농축산물 소비 등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시스



'국기 태권도 지정의 날' 메타버스 기념식

국기원,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국기원은 2022년 국기(國技) 태권도 지정의 날 기념식을 메타버스에서 개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국기원은 지난 2018년 3월 30일 태권도가 법률에 의해 대한민국 국기(國技)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의 대응책으로 대면 행사를 지양하고자 국기원 건물을 구현해 조성한 가상공간인 국기원(KUKKI-learn)에서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사흘간 펼쳐진다.

'국기원은 '국기 태권도 지정의 의미를 배운다'는 뜻으로 태권도가 대한민국 국기인 것을 대중에게 알리고 참여형 이벤트로 흥미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또 국기원은 "기존 행사 방식을 벗어나 국기원의 딱딱하고 보수적인 이미지를 개선한다는



의지도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기념식은 ▲태권도 영상 시청(국기원 태권도시범단 축하공연, 품새, 실전 태권도 호신술, 태권도 교본 홍보, 해외 지원·지부 홍보 등) ▲태권도 퀴즈(국기원과 태권도 관련 문제) ▲태권도 게임(타이밍 맞추기) 등으로 구성됐다. 기념식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30일 오전 10시부터 국기원 누리집을 통해 접속하면 된다.

/뉴시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